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학 활용 방안



김 경 미 (연세대학교 강사)
(kimi@yonsei.ac.kr)



1. 서론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한국어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다양화되었다.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능력 평가제도가 정착된 것이 십여 년이 지났고, 한국어 교수자¹⁾를 위한 자격검정시험도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국내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정책은 이미 일정한 궤도에 올라 있다.

1) 한국어 교육기관의 등급에 따라 교강사 및 교수로서의 호칭이 결정되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포괄하는 의미로 교수자라 지칭한다.

1959년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이래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어 교육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²⁾ 교육기관의 수와 학습자 규모,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인식, 한국어 교육계 내부의 역량의 증대 등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논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한국어 교육 발전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실질적인 성장을 나타내었다.

우선 교육기관이 2010년 현재 100여 곳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정규 기관에 등록된 학습자의 수 역시 1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센터와 결혼이주여성 중 집계되지 않은 학습자를 합할 경우 실제 인원은 훨씬 많아진다.³⁾ 이러한 한국어 교육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연구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학부와 (교육)대학원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속속 개설되고 관련 학회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졌으며, 개인 차원의 연구성과물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⁴⁾

이러한 한국어 교육환경의 변화는 일차적으로는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 지닌 변인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공급자 집단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순수 어학연수생, 직업과 관련한 학습자 집단, 해외 현지대학의 수강학생,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해외 입양자 집단, 외국인 취업 연수생, 재외동포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순수 어학연수생, 정규 대학 입학 외국인 집단, 정규 대학 입학 준비과정생, 예비 이주 노동자 및 이주 노동자 집단, 결혼 이주여성 집단, 한류 기반의 순수 어학연수 집단, 해외 현지 대학의 수강학생,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재외동포, 해외 한국 관련 기업체 종사자, 해외 한국관련 기업 또는 한국인 대상 업무 종사자 등으로 좀더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에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던 한국어 교육이 보다 충실한 내용을 담은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대학 수학이나 대학원 진학,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후 수행하는 교육으로 점차 발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이 근간을 이루는 내용 중심의 교수법도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필수적인 과정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

는 과정이므로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⁵⁾ 이제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능력 숙달을 위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어 교육 현장은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기반 및 전체 규모, 수요자 집단과 공급자 집단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변화와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 지향성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숙달도가 높은 학습자의 요구⁶⁾나 한국어 교육에 한국문화나 한국문학작품을 선정하여⁷⁾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학습자의 문화능력으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차원의 교재 기반과 교육방식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문학 작품은 매우 유용한 자료이며 일정한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학습자가 한국어의 비유적 표현과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하며,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소개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문학 작품은 보다 재미있고 생생하게 학습자를 자극하고 학습에 몰입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역사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할 기회를 갖는다.

본 연구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며, 기본적인 말과 글 이외에도 매체가 다각화되고 그 속도 또한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법과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언어교육은 사고 작용과 감성 작용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학 교육의 접점을 마련해 보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두 지점을 만나게 하기 위해 교수·학습 주체로서의 학습자를 강조하고 교수자의 조력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국어 학습 내에서의 문학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어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해당 문법과 어휘를 습득하여 문장을 이해하고 담화를 하는 것에 머물지는 않는다. 곧 그 언어에 담긴 가치관과 믿음, 사회적 맥락과 의의, 나아가 그에 반영된 정서와 의미망, 그리고 세계관을 파악

2) 1969년에 서울대학교의 언어교육원이 설립되었고, 1986년에는 고려대학교에 한국어연수부가 설치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한국어 교육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많은 대학들이 한국어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2011년 현재 약 70여 개 대학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30개 대학에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도 설치되었으며, 10여 개의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3)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0년 상반기에 1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는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내에 유입된 근로자의 수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 근로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와 미등록 노동자,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중 일부는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한국어 학습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정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이 곤란한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나 시민단체, 인권보호단체,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 결혼이민자가 복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등 비정규 교육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조항록, “한국어 교육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어 교육』, 19권 1호, 2008. 2쪽.

5) 최근 한국어 교육의 변화 양상에 관하여는 조항록, “국제어로서의 한국어의 실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5권, 2010. 149쪽 참조.

6)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넓은 텍스트 범위를 갖게 함으로써 목표 언어의 습득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을 ‘확장형 읽기(extensive reading)’, ‘다독’, ‘열린 읽기’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는 우형식 외, “확장형 읽기 활동을 위한 한국어 읽기 자료의 선정과 등급 구분”, 『이중언어학』, 45호, 2011. 134쪽 참조.

7) 대상 작품을 선정하는 문제는 보다 정밀한 검토를 요한다. 작품의 내용, 중심 개념, 주제, 의의 등과는 별개로 일반 독서 태도에서 사람들은 글의 제목만 보고 그 작품을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재에서도 학습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선별하기 위한 선정·배열의 효과적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에 한국의 인문학은 유통시킬 수 있는 가치와 유용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부각시키면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려는 경향이 부쩍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궤를 같이 하여 가장 실용적이라고 하는 언어 교육에서도 인문학적 가치를 살피려는 안팎의 노력과 외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어 학습 과정과 문학 교육

한국어 교육의 학적 체계가 중요한 한국어 교육학에서 문학 연구, 즉 문학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모색은 일부 관련자나 문학을 전공하고 한국어 교육 종사자들이 관심을 갖는 제한된 영역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국문학을 전공하고 문학 교육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이 그 이론적 연구는 물론 구체적인 교수 학습의 실제에 대한 논의가 극히 부진하여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학 둘 다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한 바 있다.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문학 수업이 용이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문학의 가치 및 장점이 바로 언어 수업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논의되었고, 이를 해결한 후 언어 교육에서 문학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되었다.⁹⁾

외국어 독해와 지적 훈련을 중시하던 시절에 문학 텍스트는 언어 교육의 중심 자료였으나, 1960년대에는 문화 관련 항목, 1970년대에는 고급 학습자의 연구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었고, 현재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문화 교육 연구가 문학 교육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어 교육계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문화 교육의 방법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통한 문화 교육이다. 문학 작품을 빈번히 활용하고, 한국 문화적 요소를 담은 시, 소설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기능 교육과 함께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폭넓게 관찰되고 있으며, 이미 학계에 여러 번 보고되기도 하였다.¹⁰⁾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 중고급 교재에서 문학 관련 자료는 29%(자료 18.6%, 작품 소개 10.5%), 문학적인 성격을 띠는 개발자의 수필이 38.5%(일기, 기행문, 옛날이야기 제외)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가 중고급 수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문학 교육은 전공 학습자의 문학 연구도 언어 능력의 숙달 목표로서 포함되는 넓은 범주를 지닌다. 그런데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는 언어와 문학, 언어교육

과 문학교육 등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 그리고 한국문학의 매체인 한국어, 내용으로서의 한국, 한국인이 더 문제가 되는 등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살피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한 현장교육자는 이 두 교육의 지점을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한 바 있다.¹¹⁾

	한국어 교육	한국문학 교육
교육과정	한국어 학습과정	한국학 연구 과정
수업계획표	한국어 실러부스	한국문학 실러부스
교수 · 학습목표	의사소통능력 함양	전문적 지식 축적
교수 · 학습내용	문법, 담화, 의사소통, 문화	문학, 문화, 사회, 역사
교수 · 학습방법	목표어 사용, 암시적, 습득, 활동	모국어 사용, 명시적, 학습, 강의
교수 · 학습자료	발체, 요약본 가능(한국어)	원전(번역본 사용 가능)

한국문학 교수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교수 학습 내용을 담은 실러부스이다. 기본적으로 실러부스에 담길 자료의 등급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학 교육의 경우에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작품의 선정, 갈래별 분류 및 자료화, 문학성에 대한 명시적 정리, 문학적 가치 및 의의 도출, 표준 교과과정 개발 등은 해당 전공자가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므로 한국어 교수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학의 문학 연구는 이런 양상을 정리하고 실제 수업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학습 과정 내에서는 문학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는 대상 조사에 의하면 학습자는 문학에 대하여 관심이나 재미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이것은 학습 목적이 분명한 학습자 대상 조사 결과 중,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문학 수업 학습자 47명 가운데 26명이 재미, 10명이 전공, 9명이 한국문화나 사고방식, 6명이 번역, 5명이 한국말 공부라고 대답하였다고 보고되었다.¹³⁾ 즉 문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관심, 재미, 문화와 사고방식의 이해, 한국말 공부가 학습자가 생각하는 문학 교육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전문적인 소양과 관심을 가진 학습자의 경우에는 국어국문학을 전공으로 하여 자신들이 문학 교육을 받는 목적이 연구나 번역이라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런 전문적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문학을 접하다 보니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촉발되거나 한국어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교수자는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 사회 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일부 학습자들 역시 문학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한국 사회 문화 이해와

8) 윤여탁,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4권 1호, 153쪽.

9) 위의 논문, 137쪽.

10) 조항록,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 교육』, 16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8쪽.

11) 황인교, “한국어 교육학의 문학 연구 방향”, 『한국어교육』, 18권 3호, 282쪽.

12) 위의 논문, 274쪽.

13) 위의 논문, 217쪽.

연구, 번역 등 문학 교육에 대해 다양한 요구가 있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문학 수업의 필요성은 확연하게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학 연구의 목적을 한국어 능력 향상, 즉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 문화의 이해, 즉 시대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문학 연구는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가치가 있는 분야이지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학은 우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문학 전반에 관한 일반론, 그리고 다양한 문학 내외의 기법이나 문학 이론을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전문적인 논의를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논의 자체가 한국어 능력의 숙달과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목표로 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결과, 그리고 유용성 확보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의 숙달이 문제인 한국어 교육학에서 문학 연구의 목적을 생각하면 접근하기에 결코 용이하지 않은 문학을 꼭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한국어 교수자가 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문학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문적인 연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문학 자체보다는 문학을 가르치는 방법, 즉 교수학, 기초가 아니라 그것을 응용하는 층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대체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은 그다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필요성은 한국어 교수자와 고급 단계에서의 학습자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고급 한국어 과정뿐만 아니라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부터 한국문학 작품을 어느 정도는 교수, 학습하여야 하며, 문학 교육을 통해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고급한 방식으로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¹⁵⁾ 즉 학습자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바가 있고, 바로 그것이 문학 작품의 의의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는 문학성과 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학 교육 연구에서는 현장 관련성의 부족과 문화 교육 연구의 지평과 경계가 모호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수 학습 현장 관련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의 모습을 정리하기로 한다. 현재 한국어 과정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문학 교육은 한국어 수업 내의 문학 수업과 독자적인 문학 수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한국어 과정의 자료나 교재에 문학 작품이 포함되어 가르쳐야 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독자적으로 문학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교재에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문학 선택 수업에 대해 정리된 연세대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⁶⁾

연세대학교의 일반 목적의 집중 과정인 정규과정에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학습 목표의 내용과 사용 교재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발음 능력, 어휘 능력, 문법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문화적 능력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에서 문학은 어휘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문화적 능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의사소통 능력 가운데 문화 활동 관련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항목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문학 교육 관련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휘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화 활동 관련)	사회문화적 능력
4급	짧은 수필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과 어휘 이해, 구사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 이해
5급	평이한 내용의 수필이나 소설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과 어휘 이해, 구사	대표적인 문학작품의 이해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일부 방언 이해
6급	문학적인 글에 등장하는 비유적 표현이나 어휘 이해, 구사	문학작품 번역, 향토성이 가미된 문학 작품의 이해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 및 소개

위의 표를 통해 문학 교육이 중급 후반부터 어휘와 문화 이해의 차원에서 시작되고, 6급에 이르면 번역이나 전문적인 설명 및 소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연세대에서는 한국어 수업 내에서 문학 작품을 다루는 한편, 원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문학 수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수행 목표는 한국어 수업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어 수업 내에서 활용되는 문학 수업의 목표이다.

학습자의 언어 사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그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문학작품에서 빈빈한 순우리말 어휘, 방언이나 속언, 유의어, 반의어, 또는 어휘장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법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문법적 일탈이나 비문법적 표현이 문학 작품에 종종 사용된다는 사실도 작품의 주

16) 이 자료는 황인교, 위의 논문, 285-292에서 연세대 한국어학당 정규과정의 교재에 쓰인 문학 작품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정리하였음.

17) 필자의 오래 전 경험이지만 필자가 담당하던 한국어 6급 과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목표에 큰 어려움 없이 도달하였으며, 간혹 국내의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므로 정규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작품 이외에도 한국 문학작품을 의욕적으로 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텍스트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요구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14) 위의 논문, 278쪽.

15) 윤여탁, 위의 논문, 137쪽.

제 및 텍스트를 다룰 때 반드시 고려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잘 아는 내용이라면 쉽게 이해할 것이므로 문화적 배경의 보편성과 특수성 혹은 학습자의 혈연적 친근성과 문화적 유사성 여부를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수업에서의 가치, 즉 언어, 문화, 문학, 인간의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작품의 언어적 가치는 그 작품의 유용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학적 기법을 귀납적으로 발견하게 하는 요소인 동시에 텍스트의 가치가 되기도 하다. 문화적 가치 역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면서 한국문학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작품 선정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은 생동하는 인간 생활의 실제적 모습으로서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하므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맥락을 따라 이동하며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적극적인 상상력을 요구하고 감성작용을 유도하며, 어휘와 문법, 상황 등에 대한 단편적 인지가 아닌 종합적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재는 교수-학습용으로 제작된 여러 텍스트나 자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한편 한국어 학습에서 효과적으로 문학적 맥락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¹⁸⁾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맥락을 형성하고 이어가는 주체는 교수자가 아니라 학습자이므로 설명 또는 해설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수자 중심의 맥락 설명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서적 자극, 감성과 사유 유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 해당 문학작품이 지닌 언어적 특징과 문화적 특성을 함께 파악하여야 효과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학작품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며 의미 맥락이 다르므로 실제 수업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각의 작품이 지니는 고유한 성격과 가치, 그리고 한국어 문화 교육적 효용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학작품을 활용할 때 기능주의적 접근을 경계하여야 한다. 작품 활용수업을 기획할 때 언어 기능을 기준으로 삼거나 한 편의 문학작품을 통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네 가지 언어기능에 대한 교수-학습을 모두 진행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다. 언어 기능은 교수-학습 설계의 결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넷째, 문학적 맥락 활성화나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는 결정론적 질문이나 과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상적이거나 문맥과 동떨어져 있거나 의도적인 질문은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순수한 감상이나 몰입, 상상력의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

한 태도는 학습자와 작품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국언어문화교육과 관련된 한 연구 사례에서는 한국문화감상과 한국문화이해에 따르는 감정, 의견 등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¹⁹⁾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교수자의 설명으로 수업을 전개하지 않고 학습자의 활동 및 과제로 진행한다. 학습자의 활동은 작품의 맥락을 짚어나가는 과정으로서 작품을 차례로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적 차이를 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작품 전체를 다루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순차적 읽기 방식을 통한 일반적 해석에 도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 교수자는 학습자 활동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질문과 연결자 역할에 주력하고,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해석은 피한다.
- 2) 교수-학습 내용과 목표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기능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작품을 효과적으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구성을 한다.
- 3) 작품의 제목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작품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자발적 이해 노력과 참여적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학습자가 작품 전체의 맥락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돕는다.
- 4) 작품 속의 문법 표현이나 어휘는 작품과 분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만 작품 감상 전에 학습, 습득하도록 한다. 이때 작품 속에서 의미나 형태가 변형되거나 응용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학습자 자신의 이해와 감상 능력으로 접근하게 유도한다.
- 5) 작품의 한 부분에 학습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창작의 공간을 제공한다. 작품 제목, 어휘, 문장, 대화 등 학습자가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참하여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한다.
- 6) 쓰기 활동을 제시할 때는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문학적 감상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주인공이나 작가를 대변하는 글쓰기, 주인공이나 작가와의 대화, 일반적인 형식의 감상평, 새로운 문학작품 창작 등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이 활동의 주요 의의는 형태나 형식의 정확성과 완성도에 있다기보다는 자유로운 감정 표현, 생각 표현 등 내용에 있다.
- 7) 관련 사진, 동영상, 음악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활용하여 시청각적 감상 효과를 증진시키고 사회문화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문학적 맥락의 형성과 이해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문자텍스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단순한 어휘 습득과 언어 숙달에 관심을 집중하던 한국어 교육의 기능주의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이 통합적 의사소통 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한국언어문화교육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문학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고 한국어 학습자가

18) 김수진,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언어문화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20권 3호, 2009, 37쪽.

19) 위의 논문, 39-40쪽.

세계문화 차원의 인식과 자각에 이르게 하며, 한국문학을 타자의 시선으로 보는 다원적인 독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문학 및 한국문화의 세계화, 즉 한국문화가 고유성을 지닌 무수한 타자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잡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 현장관련 문학 연구는 이런 결과에 근거한 문학 수업의 효과 및 의의, 나아가 문학적 가치의 효율적 도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 현장별, 등급별, 주제별 문학 자료의 목록이 구축되고 실러부스 운용 등 사례가 보고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로 개발할 수 있다면 문학작품의 활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4. 교수-교수법과 효과적인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자, 교재, 교수법을 중심으로 학습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동기와 학습 요구에 따라 교재의 개발 방향이 정해지며, 특히 문학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활동과 주제 선호도, 그리고 도구적 동기나 기능 및 유용성, 읽기의 세부 기법²⁰⁾에 대한 효율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²¹⁾ 이는 문학 교육을 통해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한국문학의 교수학습 자료 제공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문학 교육은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의 자질 함양과 문학 능력 향상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텍스트의 선정과 분석, 한국문학의 개별 장르와 장르 통합적 방식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의 확보나 효율적 교수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여전히 미흡한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교재는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에 정교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다를 경우, 타 기관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와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문학작품

을 활용하여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자질 있는 교수자의 양성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재 개발자나 문학작품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자의 공급은 그리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문학을 활용한 교재의 개발 문제는 급격하게 확대된 국내 한국어 교육에서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교수자의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문학 교육이 교수자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지려면 문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문화 이해를 목표로 하는 중급 이상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장의 주요 쟁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의 교육 양상	최근 10년 사이의 교육 양상
교육 형태	정규 교육	정규 교육+비정규 교육
교육 기관	대학 중심의 교육+한글학교 중심의 교육	대학 교육+중고등학교 교육+사회 교육+한글학교 교육
교육 목적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민족 교육 목적의 한국어 교육	일반 목적의 한국어+특수 목적의 한국어+민족 교육 목적의 한국어+다문화 사회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교육 내용	언어 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 주제	민간 중심	정부 차원의 제도화+정부의 참여+관학 협동
교육 담당자	현장 전문가+인접 학문 학자	현장 전문가+인접 학문 학자+한국어 교육 전공 학자

이렇듯 한국어 교육 목표 설정과 관련한 상황 변수로서의 의미를 함께 고려해 볼 때 한국어 전문 교수자의 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수법의 개선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최근에 국어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교원 자격을 국가가 인증하고 교육능력인증시험 제도를 통해 교수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아직은 시행 초기로서 교육 현장에서의 기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²²⁾ 교수자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재 개발, 교수법 개발, 교육 실시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반을 기획, 관리, 지원,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급증한 교육 기관에서 충원절차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충원 후 현장 적응훈련 등 효율적인 자질 향상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함께 범용성을 띤 교수법의 보급이 충분하지 않아 교수자의 재량에 의존하게 되므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상존할 우려가 있다.

22) 조항록, 위의 논문, 15쪽.

20) 여기에서 말하는 읽기의 세부 기법이란 단어의 뜻을 문맥이나 상황 속에서 추측하기, 특정 정보를 파악하기, 문맥 속의 내용을 추론해 내기, 빨리 읽고 주요 개념을 파악하기, 제시되지 않은 앞뒤 내용에 대해 추측하기, 문장의 생략된 부분을 알아내기, 읽고 자신이 정리해 보기, 그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 답하기, 순서 없이 흩어진 문장을 보고 순서를 찾아내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예를 들자면 40여 년에 이르는 문학 교육 역사를 갖고 있는데, 문학을 전공한 교수자의 주도 하에 다양한 시도를 하던 시기가 있었고, 최근 10여 년 동안은 실러부스를 만들거나 자료집을 이용한 수업을 해 오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에는 중급 학습자의 수가 증가하여 학습자별 특성 및 교수자 변인에 따라 다양한 문학 교육을 시도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수준별 문학 수업 등 효율적인 문학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황인교 외,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의 문학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9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33쪽 참조.

따라서 교육기관의 차원에서, 지역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수자의 전문성 제고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교수자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자료 개발 및 연찬회 등을 활성화하여 한국어 교육계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어 교육 종사자의 사회적, 법적 신분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 교육계에도 기업

국어기본법에서는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고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어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경영 방식인 연구개발 개념의 도입, 자기혁신, 구조조정의 개념을 도입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²³⁾ 뿐 아니라 노동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유관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집단과의 관학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복 지원이나 유사과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의 제정 시행, 한국어 국외보급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어사업부의 주요사업, 국립국어원의 한국어진흥팀 운영,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사업 등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정책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한국어 교육 주변 환경에 이미 큰 변화가 있어 왔다. 국어기본법에서는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고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어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과거에 문화예술진흥법을 모범으로 한 상태에서는 명문화된 조문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이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집행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한국어 교육은 한 단계 진보할 가능성이 크다.²⁴⁾

이미 국내의 몇 대학에서는 국어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국어기본법이 향후 한국어 교육계에 직접 끼칠 영향이 클 것이 예상된다. 즉 한국어 교원 자격에 대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한국어 교육전공 학위소지자에게는 2급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교사양성과정 수료자인 800 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3급을 부여한다. 또 2급 또는 3급 교원이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명시되었으며, 과거에는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의 이수 시간이 주관 기관에 따라 달랐으나 최근에는 모두

최소 120시간이라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배출이나 양성시스템, 혹은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와 신설 등에 일정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격증 제도로 인해 한국어교원양성기관의 난립이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 교재²⁵⁾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교재는 교수·학습 활동에서 일정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매개물로서 언어 교육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구현 요소이다. 교재는 교육의 이념을 표상하며 교육의 목적과 수업의 목표가 들어 있는 구조화된 모습을 갖추어 수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구체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교재에 의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자가 연결되며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본문과 어휘, 문법과 문형 표현, 듣기 및 읽기 텍스트 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재를 통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흔히 초급에서는 기본 문형을 위주로 단어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 어휘가 제시되지만 문학을 활용한 교재는 대부분 언어 학습의 수준이 중상위권에 있으며 일정한 유창성을 확보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어휘의 양적 증가 및 고급 어휘군의 숙달이 필수적이다.

교재의 개발 및 편찬에는 많은 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 능력, 학습 환경, 교사의 능력이라는 외적 상황과 어휘, 문법, 주제 등의 내적인 내용 등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주어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재 편찬일 것이다. 그간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교재의 유형, 교재 개발, 교재 평가에 대한 연구 등으로 다각적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법과 연계한 교재 유형론에 머물러 있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의사소통적 접근 방법이나 인지론적 접근 방식, 과제중심 교수법 등을 교재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²⁶⁾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예를 들자면 중급 후반, 즉 4급부터 문학 수업이 교과과정에 들어간다.²⁷⁾ 그러므로 문학 수업은 한국어 능력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언어 교육을 지향하면서 문학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문학의 사용 및 활용을 통한 언어 능력의 숙달을 기본 목표로 한다. 즉 한국어로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공공기관 이용이나 실수, 사과, 부탁 등 화행 차원의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중급 이상 수준의 한국어 능력 성취에 기여해야 한다. 물론 고급 수업은 전문적인 언어생활로 대학에서 강의

23) 최근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한국어 보급 정책 중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 세계에 설립, 운영하는 한국어 문화 학교인 세종학당 추진을 주목할 만하다. 2007년에 1단계로 실시한 이 정책은 2011년까지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에 100개교를 설립하고, 2단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에 100개교를 설립하여 전 세계에 200곳의 세종학당을 두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이다. 이에 관하여는 국립국어원 발간의 세종학당 백서를 참조할 수 있다.

24) 세종학당의 추진 및 운영계획도 국어발전기본계획으로서 국어기본법의 제1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5) 여기에서 '교재'는 '교과서'의 개념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되고 인정받는 교재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교재는 국가의 권위를 받지 못한 개인이나 기관이 필요에 따라 개발한 자료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본고에서는 이 둘을 통칭한다.

26) 이에 관하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9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의 기획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27) 황인교 외,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의 문학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9집, 233쪽.

를 수강할 수 있는 정도²⁸⁾와 전문적인 문화 활동과 관련된 한국어 숙달을 목표로 한다. 수업에서의 가치는 언어, 문학, 문화, 인간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는데 학습자의 욕구, 수준, 동기, 목표를 파악한 후 문학 중심의 수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르별 배열을 하되, 작품의 길이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필, 시, 소설을 안배하는 것으로 교재가 개발되었고 이에 따른 실러부스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자체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한국문학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교수자의 확보와 양성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 현상에 가장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현장 임무 중의 하나는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수자의 공급이므로²⁹⁾ 이제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한국어 교수자에 대한 논의가 지식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³⁰⁾ 한국어 교수자들은 문학 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문학을 전공한 교수자들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여 이 둘을 겸비한 교수자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수업 내의 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부의 인터넷 강좌와 같은 개념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관련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foundation 과정 등을 운영하여 어휘 확장을 도모하고 교육용 패키지를 구비하는 등 한국어 능력을 충분히 배양하여 학습자의 주도적 활동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
- 내용(content) 도우미와 같은 제도를 두어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한국 학생과 멘토-멘티 유형의 페어링을 함으로써 사실적 정보 교환기능과 현장에서의 지적 태도 표현이 가능하게 한다.
- 학습자들의 수행 목표를 실생활 과제와 관련하여 설정하고, 문화 갈등이나 문화 충격 등 취약 부분에 대한 관련 강좌를 개설, 확대, 운영한다.
- 문학전공 교수자와 한국어 교수자가 협력하여 같은 강좌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같은 강좌에 대해 팀티칭을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 관·학이 이를 적극적으로 협동 지원한다.

28)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2012년까지 연간 1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Study Korea Project'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은 2010년에 수적인 목표는 이미 달성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박석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8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웹페이지의 통계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29) 한국어 교사의 조건 및 양성과정에 대하여는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훈련과 방법", 『이중언어학』 제8호에서부터 시작되어 조항목,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사 연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어 교육』, 제8권, 강승혜,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한 '좋은' 한국어 교사의 특성", 『한국어 교육』, 제21권, 강현화, "해외 한국어 교사 재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논의", 『한국어 교육』 제13권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30) 한국어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언어 외적인 지식, 즉 한국에 대한 지식, 수업 운영과 관련되는 지식 등 국어기본법에서 공표한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에 필요한 영역의 습득과 인성 그리고 태도적인 측면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강승혜, 위의 논문, 9쪽 참조.

5. 결론

전통적으로 언어 교육은 인문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 내용 중심의 교육을 상호 보완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깨닫는 문제와 만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국어 숙달도가 높은 중상위급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이나 문화는 물론, 한국인의 가치와 의식, 사상 등 정신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반복적인 문장 또는 문형 중심의 한국어 교재 구성을 탈피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언어형식과 내용을 접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어 교육 내에서의 환경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문학 활용 연구라는 내용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교육의 양상과 교재 문제를 가급적 상세히 고찰하고자 하였다. 사실 교재는 형식 체제와 내용 체제를 통합한 것이므로 모든 이론과 실체가 한국어 교재 속에 포함되며, 한국어 교수자와 동료 학생-학습자 간이라는 인적 자원까지도 교수-학습 상황에 따른 교재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교수자-학습자-교재 이 세 구성 요인이 실제 상황에서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교수 학습 현장 관련연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문학 작품을 포함한 한국어 실러부스 제작, 교육 과정 및 콘텐츠 개발, 이를 통한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고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과거의 한국어 교육 환경이 학습자의 수적 증가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의 기초 기반의 확충을 요구하였다면 최근의 교육 환경은 사회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확대, 특수 목적을 가진 한국어 교육, 수요자 집단에 대한 다양한 공급 방식의 확충, 문학 및 문화를 기반으로 한 총체적 담화능력 제고 등이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한국어 교육은 다양성을 가지며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요구하게 된 변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여 필연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요구받는 이주 여성의 증가는 과거 이주 노동자가 필요로 했던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한국어 학습 동기와는 매우 상이한 판도를 가진다. 즉 다문화시대의 한국어 교육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언어 정책으로서 언어 교육은 다른 세계를 이해하여 다른 하나의 세계를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교육하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지식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표상만큼이나 언어에 대한 사고 및 문화에 무게를 두게 된 것이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가치와 의식

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의 변화에 따라 가치도 달라진다.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의 개념이 가치가 되고,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학생이라면 학문의 목적이 가치가 될 것이며, 재외동포에게는 민족의 정체성이 주요 가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교수-교수법-교재개발 및 내용의 적합성 검토, 그리고 문학 활용 교재의 필요성 및 난이도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사실 문학은 때로는 소수 지식인 집단의 전문적인 담론으로 이해 및 소통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의 글처럼 다수 대중이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하고 소비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후자는 다수 대중의 기호 사용 및 생성을 반영하고 당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연구는 이런 다양한 목표의 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텍스트와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사회의 전문적인 가치 및 지식 뿐 아니라 대중적인 차원에서도 소통과 지식의 다원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견상으로는 지난 50여 년 간 구축해 온 한국어 교육 기반과 정부 및 유관 산하기관의 참여는 최근 한국어 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 듯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의 다양화와 한국 내에서 확대되는 다문화 사회는 한국어 교육계의 내적 기반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을 가져왔다. 즉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수방식 등에 있어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 현상을 끌어 안으면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도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방대하게 분포된 교육 현장과 다문화 사회로 인한 교육 수요자의 특수한 여건 등은 기존의 한국어 교육계가 지닌 역량만으로는 처리해 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한국어 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가 제기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교수 이론과 그간 축적해 온 현장에서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결집해야 함은 물론, 한국문학을 비롯하여 한국사, 한국사회, 한국교육, 한국경제, 한국정치 등 연결고리를 지닌 인접 학문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내 유관 부서, 한국어 교육 관련 학술단체, 한국어 교육계의 전문가, 교육 현장의 담당자, 한국어 교육 수요 집단의 대표자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 발전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일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강승혜,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한 ‘좋은’ 한국어 교사의 특성”, 『한국어 교육』, 21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 강현화 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국립국어원, 2010.
- 김수진,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언어문화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20권 3호, 2009.
- 박영순, 『다문화사회의 언어문화교육론』, 한국문화사, 2007.
- 양명희, “다문화 시대와 언어정책”,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권 3호, 2009.
- 우형식·김수정, “확장형 읽기 활동을 위한 한국어 읽기 자료의 선정과 등급 구분”, 『이중언어학』, 45호, 이중언어학회, 2011.
- 윤여탁,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14권 1호, 2006.
- 조정진,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료의 구축과 활용 방안”,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지털 세종학당 학술회의, 국립국어원, 2007.
- 조항록, “국제어로서의 한국어의 실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35권, 2010.
- 조항록, “한국어 교육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어 교육』, 19권 1호, 2008.
- 조항록,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 교육』, 16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 황인교,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1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6.
- 황인교, “한국어 교육학의 문학 연구 방향”, 『한국어 교육』, 18권 3호, 2007.
- 황인교 외,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의 문학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9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5.